

봉사단, 바다 정화 위해 뭉쳤다

팽생이 모자반... 악취 야기 “오염된 해안 심각성 느껴”



정화활동에 참여한 학생들이 바다 주변 쓰레기들을 청소하고 있다.

아라봉사단이 해양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제주 바다를 치유하기 위해 모였다. 그들은 15일 오후 1시부터 4시간 동안 바다정화봉사활동을 벌였다. 이날 아라봉사단 학생 11명과 NGO단체인 글로벌 이너피스 활동가 6명은 이규진(글로벌 이너피스 국장) 씨의 지시에 따라 김영 성세기 해변 부근에서 바다 주변 환경을 정리하고 노력봉사를 진행했다.

◇팽생이 모자반을 청소할 계획이었지만

학생들은 제주해안의 문제점으로 떠오른 팽생이 모자반이라는 해조류를 청소할 계획이었다. 팽생이 모자반은 올해 초부터 제주북부해안을 중심으로 곳곳에 유입됐다. 많은 양이 쌓이다 보니 바다에 악취가 나게 됐고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눈살을 찌푸렸다.

하지만 김영리사무소에서는 학생들이 다칠 수도 있기 때문에 모자반 청소는 하지 말고 대신 주변 쓰레기들을 주워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봉사단은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 성세기해변의 해양쓰레기들을 청소했다.

◇악취가 나는 환경 속에서

바다주변에는 팽생이 모자반이 썩은 냄새가 진동했다. 하지만 학생들은 동요치 않고 자신들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했다. 그들

은 단순히 쓰레기를 줍는 것이 아니라 제주의 바다를 정화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청소해 갔다.

◇다양한 해양쓰레기

봉사단은 모래위에 있는 쓰레기부터 돌틈에 낀 쓰레기까지 주위 김영리에서 제공해준 마대에 넣었다. 쓰레기의 종류는 다양했다. 노끈을 시작으로 각종 플라스틱과 병 등 가벼운 것들부터 냉장고 등 대형쓰레기까지 버려져 있었다. 그러다보니 제공받은 마대는 순식간에 가득 찼다.

이광근(전기공학과 4)씨는 “돌아다니면서 무심코 본 제주의 바다는 아름다웠다”며 “하지만 바다정화활동을 통해 직접 몸으로 느껴보니 상황의 심각성을 느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제주바다의 아름다움을 지키기 위해 끊임없는 정화활동들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해건 기자

제주대, 포럼서 ‘동아시아 대학교육 논의’

평화연구소·국제교류본부 주관

세계 저명한 석학들 다수 참여

제주대(총장 허항진)는 20일부터 3일간 서귀포시 표선면 해비치 호텔·리조트제주에서 열리는 제주포럼에서 ‘제주대 세션’을 통해 동아시아 대학교육의 방향을 모색한다.

‘제주대 세션’은 20일 열리며 평화연구소와 국제교류본부 주관 하에 개최된다.

평화연구소 주최로 열리는 세션은 ‘동아시아 국가들 간의 신뢰구축을 위한 대학교육의 방향’이 주제이며 허항진 총장의 기조연설이 예정돼 있다. 행사에서 △이상우

평화연구소장 △신영호 제주대 공과대학 공과대학장 △이종원 일본 와세다대 교수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쉬 경희대 교수가 주제 관련 발표를 한다.

국제교류본부는 “창조경제와 고등교육의 역할”을 주제로 △허항진 총장 △강성모 KAIST대 총장 △공커 중국 남개대 총장 △아쓰시 세이게 일본 게이오대 총장이 참석해 대담을 나눌 예정이다. 또한 고충석 제주국제대 총장이 사회를 본다.

국제교류본부 관계자는 “이번 포럼은 평소 쉽게 볼 수 없는 세계적인 석학이 많이 참여한다”며 “학생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 시야를 넓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포럼을 계기로 학생들이 관련 주제에 관심을 기울이는 동기가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임세환 수습기자

구성원 學問 위한 도서관... 도서·자료구입비 줄었다

연재기획 등록금 집중 해부 <1> 대학본부의 도서관 투자 급감

최근 3년간 총 예산 증가했으나 도서관 투자는 감소 제3도서관 신축 고려... “학업·연구 방해시 늘린다”

2014년 도서관 지출액이 급감(2013년 대비 약 4억5000만원 감소)해 도서관 관련 각종 수치가 하락세로 접어들면서 올해 학생과 교원의 학업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우려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증가하던 도서관 지출액이 2014년 들어 급락해 초래되는 것이다. 5월 12일 공개된 ‘2014학년도 기성회회비 세입·세출 결산서’에 따르면 중앙도서관 전체 지출액은

8억5286만원으로 이 중 자산취득비(자료구입비) 명목으로 6억5555만원을 지출했다.

자산취득비(자료구입비)는 단행본, 연속간행물, 전자자료, 비도서자료 구입 등에 쓰여 교육과 연구 활동에 실질적 도움을 주는 명목이다. 2011년 6억5195만원, 2012년 8억7020만원, 2013년 10억5428만원으로 매년 20%이상의 증가율로 증가했다. 그러나 2014년에는 37.8%가 줄었다.

예산총액 대비 자료구입비 비율도 감소했다. 지난 3년간 예산총액은 2012년 약 1235억, 2013년 약 1296억, 2014년 1301억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예산총액 대비 자료구입비율은 2012년 0.70%, 2013년 0.81%, 2014년 0.50%로 2014년 들어 0.31% 감소했다. 전체 예산은 지난 3년간 꾸준히 증가함에도 도서관에 대한 투자는 감소한 것이다.

이로 인해 제주대의 학생 1인당 자료구입비, 연간 장서 증가량 등 수치가 평균을 밑돌거나 그 이하로 떨어졌다. 이 사실은 지난 3월 대학교육연구소 통계 발표 결과 드러났다.

학생 1인당 자료구입비는 6만9600원으로 전국 평균인 12만원의 절반 수준이고 전북대(1만5000원)에 이어 지방거점국립

대 중 2번째로 낮은 수치이다. 2012년과 2013년에는 10만5800원이었던 것이 1년 만에 3만6200원이 감소한 것이다.

연간 장서 증가량도 감소했다. 2012년 4만1645권, 2013년 4만6727권, 2014년 4만336권 매년 도서를 확보했다. 2014년에는 지난 3년간 가장 낮은 장서를 확보했다.

강권의 중앙도서관 수서관리과 과장은 “본부의 지원이 줄어들고 도서 정가제까지 겹쳐 지난 1년간 운영이 어려웠다”며 “지난 1월에는 예산부족으로 매년 연말 구입하는 외국학술지와 전자저널 일부를 구조조정에 일부 교수들이 불만을 겪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성회가 없어지면서 기성회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이 대학 전체 재정에 크게 작용한 것 같다”고 말했다. 전지민 기자

창의적 자산 실용화 위해 대학 나선다

사업기간 3년, 최대 예산 30억

제주대(총장 허항진)가 13일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는 ‘대학 창의적 자산 실용화 지원 사업단’에 지정됐다.

‘대학 창의적 자산 실용화 지원 사업단’은 논문·특허·전문적 아이디어와 같은 창의적 자산을 창업이나 기술이전, 산학협력을 통해 사업화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설립됐다.

교육부는 단독형 5개, 컨소시엄 10개, 연구소 5개 등 20개의 대학 사업단을 모집했다. 이 중 제주대는 호남·제주권에 속해 학교 시스템적으로 유사한 부분이 많은 전남

대·전북대·원광대와 컨소시엄을 이뤘다.

이 컨소시엄은 정량평가, 정성평가, 발표 등 3가지 권역별 평가에서 최상위 사업단에 선정됐다.

제주대가 추진할 사업은 우리 대학의 특성화 분야인 신재생에너지·뷰티향장·IT 등 총 8가지이다.

이번 사업의 지원 예산은 연간 최대 10억원이며 사업기간은 3년이다.

사업을 주관할 산학협력과 김준호 감사 팀장은 “학생들의 사업아이디어를 도와 특허와 창업지원, 멘토링 등을 진행해 실제 사업화 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래 수습기자

찾아가는 입시설명회... 고교 직접 방문

입학관리과(과장 한승희)는 18일부터 6월 10일까지 도내 21개 고등학교를 방문해 입시설명회를 진행한다.

설명회는 △대학홍보 동영상 상영 △제주대 교육여건 소개 △입학전형 주요사항 안내 △일대일 입학상담으로 구성됐다. 새로 신설된 수시전형과 정시전형에 대해 소개하며 2017학년도 종합전형(정성평가)에 대해 설명한다.

이번 행사는 △도내 우수신입생 유치 △대학 발전 상 홍보 △2016년과 2017학년도

입학전형 주요사항 안내 등의 목적을 가진다.

한편 일정은 △5월 18일 제주일고 △19일 남녕고 △22일 대정여고 △26일 제주고·오현고 △27일 삼성여고·대정고 △28일 애월고 △29일 한림고 △6월 1일 대기고·세화고 △2일 성산고·함덕고 △3일 영주고 △5일 표선고·서귀포고 △8일 중앙고·신성여고 △9일 사대부고 △10일 제주여고·중앙여고이다.

김미래 수습기자

제주대학교 대학원 풍력공학부에서 우수인재를 선발합니다.

풍력발전분야의 전문인력을 육성하는 제주대학교 대학원 풍력공학부에서 2015학년도 후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모집인원	• 석사과정 00명, 박사과정 0명 (특별전형)	면접시험	• 면접고사: 2015. 06. 12.(화) 10:00 ~
모집학과	• 석사과정 : 풍력공학부(풍력기계시스템전공, 풍력전기·제어 시스템전공, 풍력해양·토목공학전공) 3개 전공 • 박사과정 : 풍력특성화합동과정	특 전	• 석사과정 월 70만원, 박사과정 월 100만원 장학금 지원(Full Time) • 우수 대학원생에게 해외 우수대학 학점교류 비용 지원 (유럽 : 알보그대학(덴마크), 델프트공대(네덜란드), 러프버러대학(영국) / 일본 : 아시카가 공대 등) • 우수 대학원생에게 해외·국내 인턴십 비용 지원 (한국남부발전(주), 한국전력, 두산중공업, 효성중공업, 네덜란드 ECN, 독일 Lahmeyer, 영국 Lomax 등) • 국·내외 학술대회참가 및 논문발표 지원 ※ 위 지원금은 풍력공학부 내규에 따라 지급되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지원 자격	• 전공제한 없음(이공계열·인문사회계열 등) • 인문계 : TOEIC 700점에 상응하는 영어능력 자연계 : TOEIC 600점에 상응하는 영어능력	졸업 후 진로	• 한국남부발전(주), 제주에너지공사, 대림산업, 효성중공업, 대한전선(주), 한국전력 등 국내 대기업 및 국가 공기업 (석·박사 졸업생 취업 자료에 근거함)
원서접수	• 2015. 05. 26.(화) 10:00 ~ 05. 29.(금) 17:00 • 본교 입학안내 홈페이지 (http://ibsi.jejunu.ac.kr) 입학원서 접수 대행사 (http://www.uwayapply.com)	선발방법	• 면접(면접 시 영어능력 구술 평가함)
		문의처	• 제주대학교 입학관리과 (064)754-3991 • 대학원 풍력공학부 행정실 (064)754-4400 • 홈페이지 : (http://gwe.jejunu.ac.kr)

사설

5.18 민주화운동을 기리며

1980년 5월 17일, 당시 정권을 장악하였던 신군부세력은 전국대학총학생회장단 회의 도중 전국 55개 대학의 학생대표 95명을 연행하였고, 당일 24시를 기해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 실시하였다. 국회를 비롯한 정부기관, 대학, 각종 언론사와 방송사 등에는 무장한 계엄군이 주둔하였다.

계엄사령부는 계획된 수순으로 정치활동 중지를 공포하고 대학에 휴교령을 발동하였다. 그리고 상황을 더욱 옥죄기 위해 옥내외 집회 시위의 금지, 언론 출판 보도 및 방송의 사전 검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포고령 10호’를 발령했다. 당시 행해진 신군부의 계엄령 확대조치는 오랜 독재에 맞서 민주화를 위해 노력하였던 재야 정치인과 민주화운동 관련자를 시위의 중심세력으로 여겨 탄압하고 민주화를 열망하였던 국민의 기대와 요구를 저버린 명백한 불법 행위였다.

1980년 5월 17일 21시 40분, 임시국무회의가 비상계엄 확대 선포안을 의결하자, 신군부는 이를 기다렸다는 듯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등 주요 대도시에 군대를 투입하였다. 광주에는 7공수여단 33대대와 35대대가 전남대와 조선대에 투입되어 민주화운동 세력을 제압해 버렸다. 5월 18일 10시 무렵 계엄군은 전남대학교 정문 앞에서 등교를 하는 학생들을 막아 세웠고, 학생들이 거세게 항의하자 계엄군은 잔혹한 폭력을 가하기 시작하면서 광주의 비극은 슬프게 막이 올랐다.

19일 새벽 도심 곳곳에서는 시민과 계엄군의 격렬한 대치와 충돌이 일어났다. 장갑차와 헬기까지 동원하던 계엄군은 광주역 앞에서 결국 시민들을 향해 발포하기에 이른다.

당시 신군부는 타 지역에 광주가 ‘치안 부재 상태’라고 조작 보도하게 하여, 광주시민의 민주화 요구를 묵살하고 계엄군의 살인적 진압을 은폐시켰다. 진실은 은폐되었고, 대다수의 국민들은 그렇게 광주와 그 안타까운 희생자들을 망각의 기억 속으로 사장시키고 있었다.

그러나 진실을 찾고자 하는 이들의 노력과 희생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5.18민주항쟁의 진상을 알리고자 하는 노력은 전국 도처에서 계속되었다. 박종철군 고문치사 사건으로 촉발된 6월 항쟁은 전 국민의 민주화에 대한 의지를 새롭게 하였다. 특히 6월 항쟁을 통해 국민들은 ‘1980년 5월 광주에서 일어난 일’을 전 사회적으로 재인식하게 되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흐른 1995년 김영삼 정부는 ‘5·18관련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였고, 광주항쟁에 대한 본격적인 진상규명작업이 실행되었다. 그리고 지금 ‘임을 위한 행진곡’은 광주에서, 망월 묘지에서, 매년 오월 거리에서 5.18민주화운동과 희생자를 기억하며, 민주화를 위한 열망에서 불리고 있다.

그날의 아픔은 비단 광주만의 아픔이 아니었다. 그날의 항쟁은 당시 우리 제주대에 재학하던 학우들도 이 땅의 민주화를 외치며 함께 투쟁하였던 대한민국의 모든 지역이 함께 한 거대한 역사의 움직임이었다. 사반세기의 시간이 흐른 지금 우리는 5.18민주화운동의 숭고한 희생과 그 정신을 기리며 이 땅위에 펼쳐질 평화와 민주를 위한 미래를 준비할 것이다.

제주대신문

The Jeju National University Press

발행인·총장 허항진 편집인·주관 최낙진 편집국장 백승규

우)690-75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학교로 102 전화안내 064)754-2114

제주대신문 편집국 064)754-2277-9 제주대미디어<JUMP> news.jejunu.ac.kr

‘불금’은 책과 함께… 도서관에서 無박 二일 캠핑

우리 대학 이외 타대학생들도 참여해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학생들 호응 유도

5월 16일 오후 7시 ‘밤샘 책읽기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중앙도서관으로 발걸음을 재촉했다. 도서관에 모인 사람들은 기존 신청자인 60명보다 많아 보였다. 또한 불금야독에 맞게 학생들의 눈빛과 태도에서 의지를 엿볼 수 있었다.

이번 행사는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제주지역 대학생들의 책 읽는 풍토 조성과 상호 유대감을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서관에는 제주대학생들뿐만 아니라 한라대, 관광대학교 학생들이 자리 하고 있었다.

행사는 오후 7시 20분 시작했다. 초청강사 이완국(하귀초등학교 교사)씨의 강연과 간단한 간식 타임이 끝나고 본격적인 행사의 막이 올랐

다. 학생들은 미리 정해진 조원들과 함께 도서관에서 준비한 도서관 스탬프 투어를 시작했다. 스탬프 투어는 도서관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미션을 수행하고 모든 스탬프를 최대한 일찍 획득하는 프로그램이다.

투어의 미션은 영화를 보고 원작의 이름과 저자 찾기, 책이름 몸으로 말해요 등 여섯 가지로 진행됐다. 학생들은 “빨리 가서 자리 잡아”를 외치는 등 바쁘게 움직이며 도서관을 휘젓고 다녔다. 평소 도서관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왁자지껄한 소리가 울려 퍼졌고 학생들은 난생 처음해보는 경험에 계속 미소를 띄웠다.

11시에 스탬프 투어가 마무리된 후 메인 행사인 독서가 시작했다. 이날 독서는 총 6시간동안 진행됐다. 학



밤샘 책읽기 행사에 참여한 학생들이 피곤함을 잊은 채 독서에 열중하고 있다.

생들은 본인들이 신청한 책을 읽기 시작했다. 새벽 4시가 되도 학생들의 눈빛은 처음과 달라지지 않았고 오히려 새벽이슬을 먹은 듯 초롱초롱하게 빛났다. 독서 중간에는 퀴즈와 빙고도 진행됐다. 각각의 우승자들에게는 상품이 지급됐다. 또한 휴식시간마다 학생들에게 간식이 제공됐는데 학생들은 모두 “도서관에서 음식을 먹다

니”, “이런 경험을 지금 아니면 언제 하겠어”라며 이색적인 경험에 만족감을 느꼈다.

17일 오전 7시 모든 행사가 종료됐다. 학생들은 잘 구성된 프로그램에 만족감을 표했다. 또한 행사가 지속적으로 열리기를 바랐다. 그렇게 학생들은 피곤한 몸을 이끌고 각자의 집으로 향했다. 김해건 기자

반디 포럼 개최… ‘미래 기술 전략 논의한다’

대학·기업 협력 기회

세계 반도체·디스플레이 업계 리더들이 제주에 집결한다. 오는 22일부터 이틀간 제주대 국제교류회관에서 ‘제5회 반도체·디스플레이(반디) 제주 포럼’이 열린다.

포럼에는 세계 주요 기업인과 학계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해 지속적인 산업 발전과 장비·소재 국산화 등 미래 기술 발전 방향을 논의한다. 이번 해는 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 춘계학술대회도 오는 21일부터 함께 열린다.

이윤우 삼성전자 상임고문이 기조 연설을 맡아 미래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 발전상을 발표한다. 이어 테라 히가시 도쿄일렉트론 CEO와 정은승 삼성전자 부사장이 특별 강연자로 나서 업계 현안을 공유하고 향후 시장을 이끌어갈 첨단 기술과 전략 등을 발표한다.

김정화 산업통상자원부 전자부품과장, 김영우 HMC투자증권 전문위원, 이신두 서울대 교수, 김경수 한국 디스플레이산업협회 부회장이 ‘한국 디스플레이 산업, 지속적인 성장 가능한가’라는 주제로 패널 발표를 진행한다. 국내 디스플레이 산업 위협

요인과 대응 방안에 대한 토론회도 열린다.

또 이틀간 차세대 반도체 장비와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등 디스플레이 관련 논문 20여편이 발표된다.

포럼 조직위원장을 맡은 이광만(전자공학과) 교수는 “이번 포럼은 글로벌 반도체·디스플레이 업계 양대 산업을 이끌어가는 리더를 초청해 미래 기술을 발표하고 기업 전략과 정부 산업 육성 전략을 듣는 자리”라며 “이를 통해 대학과 글로벌 기업 간 산학협력 기회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찬우 기자

고다정(영문 3) 대상 영예

제36회 영어말하기 대회

제36회 영어말하기 대회가 14일 사회과학대학 중강당에서 열렸다. 신문방송사 영자신문이 주최한 이번 대회는 20명이 참가했다.

발표는 △사랑하는 사람이 죽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당사자에게 알릴 것인가 △당신이 만약 정치인이 된다면 정치적 소신을 따를 것인가 혹은 재당선이 되기 위해 당을 위해 일할 것

인가 △자연의 생명을 소모품으로 바꿔버리는 자본주의 체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등 이 3가지 주제 중 한 가지를 선택해 진행됐다.

이번 대회에서 대상은 고다정(영어영문학과 3), 우수상은 김경병(영어교육과 4), 장려상은 소상재(수의예과 2), 이윤주(영어영문학과 3) 학생이 수상했다.

자본주의의 개발과 보존이라는 주제로 발표한 고다정(영어영문학과



고다정(영어영문학과 4) 학생이 심사위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3)학생은 “전달 내용이 너무 많은데 시간이 4분 밖에 주어지지 않아서 내용을 줄여가기가 힘들었다”며 “큰 상을 주셔서 감사하고 계속 도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정희 수습기자

제주 농산품 수출 상담

청년무역전문가양성사업단(이하 GTEP·사업단장 이용관 무역학과 교수)은 지난 6일부터 4일간 홍콩 완차이에서 열린 ‘2015 홍콩국제식품박람회’에 참가해 세계 각국에 제주 농수축산품 수출 상담 활동을 벌였다.

GTEP 요원들은 협력업체인 도내 (주)삼다를 포함한 8개 기업과 함께 박람회에서 △부스 디스플레이 △상품 홍보활동 △해외 시장조사 △간단한 통역활동 △시식, 시음활동 등을 진행했다.

GTEP란 학과에 제한 없이 무역에 관심 있는 2·3학년 재학생을 선발해 1년 3개월간 실무 지식과 현장 교육을 실시하여 무역전문가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이다. 현장교육은 도내업체와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를 맺어서 계약이 이뤄지기 전까지의 모든 활동을 말한다.

박람회에 참가한 김민지(무역학과 4) 학생은 “수산가공 협력업체(주)삼다와 냉동생선으로 회와 초밥을 만들어 시식행사를 벌였다”며 “이를 통해 한국인과 중국인들이 선호하는 맛의 차이를 알게 됐고 수출 가능성이 있는 생선을 선별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소윤 수습기자

해양연, 장학금 전달

해양과학연구소(이영돈 교수)는 12일 △함덕고 양지웅(17)·이소현(17) 학생 △함덕중 김예원(16)·이승희(15) 학생에게 기당장학금을 전달했다. 또 연구소는 이날 함덕어촌계(어촌계장 이광원)에게 200만 원의 발전기금을 전달했다. 이 기금은 2011년도부터 지역어촌 발전을 목표로 함덕어촌계와 협약을 맺으면서 매년 지원되고 있다.

변수철 해양과학연구소 행정팀장은 “故강구범 선생이 1986년 부지와 1988년 건물을 기증했다”며 “제주 젊은 학자들이 한층 더 개선된 환경에서 연구를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선생의 족적을 남기고 그의 뜻을 기리기 위해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선발기준은 조건을 지역 내에 있는 중·고등학교의 학교장 추천으로 이뤄진다.

2007년부터 고등학교의 경우 각 100만원, 중학교의 경우 각 50만원으로 총 4명의 학생에게 도합 300만 원의 장학금을 매년 지급해 오고 있다.

임세환 수습기자

미술 실기대회 개최

예술디자인대학(학장 박성진 미술학부 교수)은 오는 29일 미술·디자인 실기대회를 개최한다.

미술 분야 실기대회는 행사 당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치러진다. 평가부문은 중등부 수채화, 고등부 △한국화(정물수묵담채) △서양화(수채화) △조소(점토두상)이다. 디자인 분야 실기대회는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진행된다. 평가부문은 중·고등부 구분없이 평면디자인·입체디자인이다.

박성진 학장은 “이번 대회로 도내 중·고등학생의 미술 실력 정도를 가늠할 수 있고 입장자들에게 특혜가 주어진다”고 말했다.

심소연 수습기자

이시향 박사 기금 전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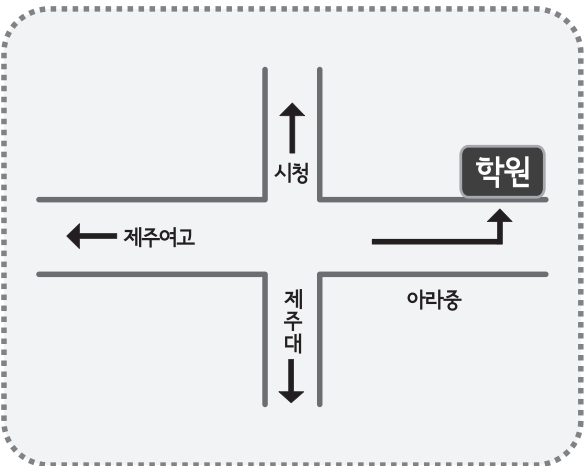
이시향(78) 명예경영학박사가 13일 제주대학교 발전기금으로 5000만원을 쾌척했다.

이 명예박사는 인재양성과 건립기금과 장학기금 등으로 △2010년 9월 8억원 △2012년 4월 5억원 △2012년 7월 2648만원 △2013년 8월에 3억원 △2014년 8월에 3억원 △2014년 9월 3000만원 등 이번 기금을 포함해 모두 17억1000만원을 쾌척했다.

김이래 수습기자

운전면허 제주대학교 발전후원업체 한라자동차 운전 전문 학원

- ▶ 매일 학원 자체 운전면허 시험 실시
- ▶ 제주시 전지역 셔틀 운행 : 제주대←→학원 셔틀 운행
- ▶ 주말교육가능
- ▶ 제주여고입구 건너편(다리)←→학원셔틀버스 운행



제주시 아라2동 1320(제주여고 입구 동쪽)
☎ 755-9900

“시인·소설가 등용문” 제35회 백록문학상 현상 공모

제주대신문이 창간 61주년을 맞이하여,

제35회 백록문학상을 현상공모합니다.

학생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응모자격 : 제주대학교 학부 및 대학원 석사과정 재학생

2. 응모분야 : 시(1인 5편 이상) 또는 단편소설(1인 1편)

3. 접수마감일시 : 2015년 5월 22일(금) 17:00까지

4. 접수장소 : 신문방송사 행정실(취업전략본부 3층)

* 백록문학상 응모시 출력 원고를 동시에 접수하며, 반드시 원본파일을 E-mail : press@jejunu.ac.kr로 제출해야 함.
* 원본파일은 본인 이름과 학과 등의 파일명으로 제출바랍니다.
* 문의처 : 신문방송사 행정실 Tel. 754-2282

5. 발표 : 제주대신문 939호(2015년 6월 3일(수) 발행 예정)

6. 시상내역 : 시 당선작 - 상금 50만원 및 총장상
단편소설 당선작 - 상금 70만원 및 총장상

* 당선작이 없을 경우 가작을 선정할 수 있으며, 가작 상금은 당선 상금의 절반으로 함.

제주대신문

아시아의 명문, 세계의 중심 국립제주대학교

2015학년도 후기 대학원 특별전형 신입생 모집

· 모집과정 : 석사, 석·박사통합, 박사학위 과정

구 분	전형 일정	비 고
원서 접수 (인터넷 접수)	2015. 5.26.(화) 10:00 ~ 5.29.(금) 17:00	▪ 입학원서 접수 대행사 홈페이지 (http://www.uwayapply.com)
첨부서류 제출	2015. 5.26.(화) ~ 6. 4.(목) 18:00	▪ 제출처: 우)690-756 제주시 제주대학교로 102 입학관리과 ▪ 제출방법: 등기, 택배 또는 방문 ▪ 토·일요일은 휴무
실기고사	2015. 6.12.(금) 10:00~	▪ 대상 학과: 음악학과, 미술학과 ▪ 장소: 음악관, 미술관
면접고사	2015. 6.12.(금) 10:00~	▪ 대상 학과: 음악·미술학과를 제외한 모든 학과 ▪ 장소: 모집단위별 학과사무실
	2015. 6.12.(금) 14:00~	▪ 대상 학과: 음악학과, 미술학과 ▪ 장소: 음악관, 미술관
합격자 발표	2015. 7. 3.(금) 예정	▪ 입학안내 홈페이지 공지

전화: 064)754-3991

입학안내 홈페이지: http://ibsi.jejunu.ac.kr

교수시론



오승은
행정학과 교수

“

대학을 둘러싼

위기 상황에서

대학이 위기감을 갖고

고민하고 대응해야

”

대학(university)의 어원은 교수와 학생으로 이뤄진 자치적 학문공동체를 뜻하는 라틴어 universitas magistrorum et scholarium라는 표현에서 비롯됐다. 근대 초기 출범한 유럽의 대학들이 세속적인 정치권과 교회권력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학문공동체의 실현을 위해 지대한 노력을 해 왔던 것을 짐작할 수 있는 말이다.

오랫동안 우리사회에서도 대학은 ‘학문의 전당’, ‘상아탑’으로서 존재해왔다. 소수의 엘리트를 지성과 교양을 갖춘 양심적인 민주시민을 길러내는 것이 대학의 몫이었고, 산업체에서는 이들을 데려다 직무교육을 시키는 것이 당연시됐다. 그러나 최근의 상황은 매우 달라져 기업에 해야 할 훈련을 대학과 학생에게 전가하고 있다. 맞춤형 교육이라는 이름하에 개별 기업에 필요한 교육을 학교에서 시행하라고 하고 각종 취업스펙과 경력요건을 만들어 그에 드는 비용을 개인 학생이 부담하라고 요구한다. 그 결과, 대학에서는 인문학을 비롯한 기초학문 전공이 차츰 폐지되고 있으며 마치 취업전문학원의 강좌명을 방불케 할 정도로 낮은 이름의 학과들이 생겨나고 있는 등, 대학은 매우 세속적이기를 강요받고 있다.

대학이 겪는 위기상황은 이뿐만이 아니다. 1996년에 우리나라는 대학설립준칙주의를 도입

하여 교지, 교사, 교원, 수익용 기본재산 등의 최소한의 설립요건만 채우면 대학설립을 인가하도록 했다. 준칙주의의 도입으로 설립요건이 크게 완화되자 많은 신설대학들이 우후죽순 생겨난 데 반해,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의 감소로 2017년 이후에는 대학의 입학정원보다 고등교육 졸업자의 수가 적어지는 현상이 발생할 것이 예측됐다. 이대로라면 입학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문을 닫는 대학들이 앞으로 속출할 것이 예상된다.

심지어 ‘유엔미래보고서’에서는 2030년까지 전 세계 대학의 절반 이상이 소멸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는데 그런 변화를 촉진하는 것은 바로 무크(MOOC: Massive Open Online Course)다. 무크(MOOC)는 대규모(Massive) 수강자에게 무료이며(open) 인터넷(online)으로 제공되는 교과과정(course)을 말한다. 기존의 e-러닝에서 제공하던 동영상이나 온라인 교재 같은 전통적인 코스뿐만 아니라 양방향(Interactive)형태로 커뮤니티를 형성해 상호 포럼을 제공하며 페이스북 등을 통해 실시간 토론이나 채팅 등의 평가가 가능하다. 강의를 수강하고 시험에 통과하면 수료인증서를 발행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서울대가 에덱스(edX)에 강의를 제공하고 있고, KAIST는 코세라(coursera), 연세대학

교가 코세라와 퓨처런(FutureLearn)에 강의를 제공 중이다.

이런 추세 속에서 우리나라 정부도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인 K-MOOC 프로젝트를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올해 3월에 K-MOOC를 진행할 대학을 공모해 10개 대학을 선정했고, 하반기부터 시범강좌를 운영하며 2018년까지 500개 이상의 강좌를 만들 계획이라고 한다. 무크의 도입은 대학교육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세계 명문대의 수준 높은 강의 공개가 일상화되므로 교육의 질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며 강의는 지식전달을 위한 수업대신 문제해결을 위한 역량 중심 강의로 변화할 것이다. 굳이 대학을 다니지 않아도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고 수료증을 받을 수 있기에 대학 진학률도 낮아질 것이므로 대학의 중심은 학부에서 평생교육으로 이동할 것이다.

대학을 둘러싼 이런 환경변화 속에서 우리 제주대학교 또한 스스로의 정체성을 어떻게 자리매김을 해 나갈 것인지 심각하게 고민하고 대응해야 할 시기에 있다. 국립거점대학교로서의 안정적 지위와 높은 제주지역의 진학률과 교육열에 안주한다면 머지않아 거센 변화의 회오리 속에서 정체성의 위기를 맞게 될 것이다.

꿈이 없더라도,
길을 헤매도 괜찮다

동문칼럼



김태연
언론홍보학과 08학번
제주의소리 기자

스물 언저리에 쓰던 일기장을 들춰봤다. 스물다섯엔 어떤 어른(스물다섯 정도면 어른이라고 생각했던 모양이다)이 되어 있을지 상상하며 쓴 대목이 눈에 띄었다. 고전과 명작을 독파하고 재즈 레이블을 줄줄 외우고 있으며 세계 지도에 가본 곳을 동그라미 치는 낙으로 사는 우아한 신여성이었다. 아직도 독서 목록은 줄지 않았고 듣지 못한 앨범이 쌓여 있으며 여행은 변변히 순위에서 밀려난 채 스물하라고도 일곱 살이 되었다. ‘오늘날’ ‘이번 주말’ ‘이번 기회란’ 겨우 때우며 지내기에 급급한 4년차 직장인으로 살고 있다.

그럼에도 주눅 들지 않는 건 우연히 맞닥뜨린 지금의 일상이 마음에 들어서다. 이제와 고백하자면 언론 홍보를 전공으로 고르면서도 ‘기자’가 될 줄은 상상도 해본 적이 없다. 장차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밥벌이를 하리라고 생각지도 못했던 철부지였다. 학교에 다니던 4년 동안은 내내 방황과 표류의 시기였다. 하고 싶은 일도 뚜렷하지 않았고 되고 싶은 것도 마땅히 없었다. 장래희망을 물으면 머뭇대기 일쑤. 그저 호기심에 툭이 서서 덩석 지역 언론사에 입사하고 난 것이 오늘에 이르렀다.

그렇게 4년이 지났다. 따져보면 대학교를 한 번 더 다닌 셈이다. 사실이 그렇다. ‘학교 다닌다고 생각하지’ 입사하면서 스스로에게 다짐했던 바다, 허우적덜 때마다 되뇌던 ‘4년차’에 드디어 접어들다니. 이대로 졸업을 하는 것도, 누가 알아줘서 학위를 받는 것도 아닌데 감개무량이 남다르다. 동문칼럼 청탁을 받아온 이유도 이를 기념하기 위한 엉큼한 속셈이 숨겨져 있다.

돌이켜보니 우연이 아니라 운명이었을지도 모르겠다. 꿈은 아니었지만 평소 그려오던 가치관과 잘 맞아떨어졌다. 내 길은 아니라고 여겼는데 걷고 뛰고 구르다보니 깨닫게 되는 매력도 쏙쏙했다. 운이 좋아서일 수도 있지만 뭐든 멈추지 않으려던 노력이 컸다. 사회의 다양한 영역과 접점을 찾으려고 바둥뭇던 것이 큰 밑천이 되었다. 학생회 활동, 아르바이트와 공모전, 프로젝트 기획 등 다양한 시도가 도움이 됐다. 번듯한 이력은 아니지만 적어도 나는 누구인지, 스스로와 가까워질 수 있는 시기였다. 또한 익숙하지 않은 자국으로 나의 한계를 넓혀가는 성취감도 무엇보다 큰 보상이었다.

대학에 입학하고 가장 당황스러웠던 건 내가 나를 잘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해야만 하는 공부라 아니라 재량껏 시간표를 짤 수 있고, 교복이 아닌 내 멋대로 옷을 골라 입을 수 있고, 가윗돈도 제법 늘어나는 자유가 주어졌지만 뭘 어찌야 할지 몰라 찢찢 땀던 기억이 난다. 나를 알아가는 방법은 다른 게 없다. 여러 기회에 나를 밀어 넣고 뒹돈 해보는 것이다. 해보고 나서 재미를 붙인다면 그 영역을 넓혀 가면 되고, 맞지 않으면 관두면서 자신에게 맞는 것을 취사선택해 나가면 된다.

한마디 더 잔소리를 하자면 ‘연애하라’는 말을 덧붙이고 싶다. 소개팅도 할 수 있는 만큼 해볼 것을 권한다. 연애는 단순히 좋아하는 누군가와 시간을 보낸다는 것 이상으로 여러 자극을 가져다준다. 나와 남을 한겨번에 알 수 있는 도구이자 수단이기도 하다. 상대의 한 마디에 종일 나사 빠진 사람이 돼 보기도 하고, 납답지 않은 모습에 당황도 해보아야 하고, 이별에 부딪혀 일상을 내 동맹이 쳐보기도 해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나다운 나를 만날 수 있다고 믿는다. 그 모든 경험은 분명 운동 남으란만 이뤄진 사회를 이해하는 데도 영향을 미친다.

여러분의 독자 의견·투고를 받습니다

원고 보내실 때 이름, 학과, 연락처를 기입해 주십시오.
게재된 원고에 한해 원고료 2만5천원을 드립니다.
☎064) 754-2277 - 2279 이메일 press@jejuun.ac.kr

기자수첩



황유리
수습기자

“

방송사들의

도의적 의무가

여느때보다 필요하다

”

최근 눈길을 사로잡았던 기사 제목은 “‘슈퍼맨’ 일곱 아이들 제주도 사진집 출간, 수익금 전액 기부”다. 이따금씩 보는 육아 예능에 대한 기사였다. 원체 아이들을 좋아하는지라 교육대학에 진학한 필자 역시 텔레비전 속 아이들의 귀여운 모습에 하릴없이 ‘엄마미소’를 짓곤 한다.

MBC <아빠! 어디가?>를 필두로 육아 예능의 전성시대는 KBS2 <슈퍼맨이 돌아왔다>, SBS <오! 마이 베이비>, KBS1 <엄마의 탄생> 등으로 이어지며 여전히 현재 진행 중이다.

이와 동시에 육아 예능으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 내지 ‘위화감’에 대한 논란도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또래 아이를 키우는 사람들은 방송을 보면서 남의 집 아이가 피우는 재롱보다 그 아이가 쓰는 각종 고가의 육아용품에 더 눈길이 간다고 한다. 아이와 함께할 수 있는 시간 자체에 대한 부러움을 표하기도 한다. 아이의 잠든 얼굴만 보기 일쑤인 워킹대디, 워킹맘에게 아이와 함께 떠나는 여행은 꿈만 같은 일이기 때문이다. 많은 부모들이 주말 저녁마다 마음 한 구석이 무거워지는 이유다.

가족 예능의 흥수 속에서 마지막으로 출사표를 던진 건 SBS <아빠를 부탁해>다. ‘집안의 가장’이 아닌 집안의 가구로 전락한 황혼기의 아빠가 인생의 황금기를 맞은 딸에게 아빠를 부탁해본다’는 의

도의 이 프로그램은 네 명의 배우이자 아버지와 그들의 ‘다 큰’ 딸들이 나온다. 언제부터 대화가 사라지게 된 부녀의 일상과 서먹한 관계를 개선하려는 그들의 노력은 많은 시청자들의 공감을 얻었다.

하지만 조금씩 가까워지는 부녀의 모습은 마냥 흐뭇하게만 지켜보기 어렵다. <아빠를 부탁해>에 출연하는 네 명의 딸은 ‘공교롭게도’ 모두 연예계 혹은 방송계 지망생이기 때문이다. 이에 ‘연예인 세습’을 위한 프로그램이라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이번엔 씹쓸해지는 건 또래의 학생들이다. 단지 누군가의 딸이라는 이유로 자신의 꿈에 성취감을 느끼지 못하는 출연자들은 극심한 취업난으로부터 살아남기 위해 아등바등 살고 있는 그들에게 허탈감을 안겨주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 학자금, 월세 등 대다수의 대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고민들로부터 자유로운 출연자들이 아빠와의 사이가 멀어졌다며 눈물짓는 모습은 ‘배부른 걱정’을 하고 있다고 비춰지기 십상이다. 실로 관련 기사의 의견란에는 “육아 예능을 보면서 왜 부모들이 위화감을 느낀다는 건지 비로소 알겠다”는 반응이 적잖았다.

혹자는 “마음을 들지 않으면 안 보던 그만 아니냐”고 말한다. 그러나 방송이 갖는 지대한 힘은 이를 단순히 개인의 취향의 영역으로만 치부하기 어

렵다. 앞서 언급한 <슈퍼맨이 돌아왔다>의 제주도 사진집은 원래 이익창출을 목적으로 출간될 예정이었다. 시청자들의 비난이 이어지자 제작진은 수익금을 결국 전액 기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수익금 전액 기부”라는 따스한 기사 제목 뒤에 숨겨진 뜻이 야기는 ‘일만했던 아빠들의 제자리 찾기 프로젝트’라는 기획의도에 회의감을 가지게끔 한다.

우리나라의 대표 모금 프로그램이었던 KBS1 <사랑의 리퀘스트>는 지난해 12월, 17년의 종지부를 찍었다. ‘모금 방식이 낡았다’는 이유에서였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의 후원을 받던 이 프로그램은 안타까운 상황에 처한 어린 아이들의 사연이 자주 소개됐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 아닐 것이다. 이는 <사랑의 리퀘스트>의 암묵적인 폐지 사유가 낮은 시청률임을 방증한다. 한 마디로 돈이 안 된다는 것이다. 식지 않는 육아 예능의 인기 속에서 ‘공영방송’ KBS가 내린 이와 같은 결정에 씹쓸함을 느낀다.

‘가정의 달’ 5월도 어느덧 하순으로 접어들고 있다. 현실에 치여 여행길에 오르는 대신 텔레비전 속 연예인 가족들이 떠나는 여행을 보며 휴일을 보낼 수밖에 없는, 치열하게 미래를 준비하는 수많은 부모들과 학생들은 공익을 추구해야 한다는 그들의 도의적 의무에 방송사들이 보다 더욱 책임감 있는 자세를 가져야하는 이유다.

독자기고

아래대동제 때 모금활동을 벌이려는 이유

최지은
독일학과 3



<습관 1%만 바뀌도 인생이 달라진다>라는 책에는 세계적인 부호 하워드 휴즈의 이야기가 나온다. 사막 한복판에서 트럭을 몰고 가던 한 젊은이가 노인을 발견하고 차를 세웠다. 그는 노인을 행선지까지 태워주고 25센트를 노인에게 주며 차비에 보태라고 쥐어준다. 노인은 젊은이의 명함을 받았고 이 신세는 꼭 갚겠다 약속을 하고 둘은 헤어진다. 이 일을 까마득히 잊을 무렵, <하워드 휴즈 사망>이란 기사와 함께 그의 유언장이 세상에 공개됐다. 그가 남긴 유산의 일부는 뱌빈 다마에게 증여한다는 내용이었다. 유언장 이면에 뱌빈 다마는 그가 일생동안 살아오면서 만났던 가장 친절한 사람으로 기록돼 있었다. ‘친절한 사람’, 유산을 남겨주는 유일한 이유였다. 허름한 노인은 하워드 휴즈였고 뱌빈 다마는 사막에서 노인을 도와준 젊은이였다. 이 젊은이의 사소한 친절을 이야기해보려 한다.

얼마 전 4월 25일 네팔의 수도 카트만두에서 7.8 규모의 강진이 발생했다. 지진 사고로 현재까지 8,50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다. 건물 상당수가 무너졌고 도로는 두 동강이 났으며 통신망과 전기마저 끊어졌다. 이런 비극적 상황을 더 안타깝게 만드는 현실은 네팔 인구의 40%가 어린이라는 것이다. 이후 전 세계 여러 나라들이 네팔을 위해 힘쓰고 한국도 마찬가지로 많은 단체에서 구호기금을 전달하고 있다. 학교 또한 마찬가지다. 정문에서 총학생회와 네팔유학생들이 기부모금함을 들고 서있는 모습을 봤다.

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지역사회에 대학생, 나아가 글로벌 사회의 일원으로서 네팔에 가치 있는 지원을 하고 싶었고 이는 뱌빈 다마의 사소한 친절을 생각나게 했다. 가진 것은 없지만 25센트, 작은 돈으로 그는 친절을 베풀었다. 작은 도움이 때로는 기적과 같은 선물이 돼 따라오며 그 선물의 값어치는 더욱 빛난다는 것을 말이다. 나는 주변을 찾아 마음이 맞는 선배 두 명과 함께 고민한 끝에 직접적인 행동에 나섰다.

구성원들의 참여가 높은 아래대동제 때에 과일 주스를 팔아 수익금을 기부하는 후원모금활동을 기획했다. 초여름에 열리는 축제에는 날씨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열기로 늘 뜨겁다. 주스를 사 마시으로써 단순히 목을 축이는 음료가 아니라 고통 받고 있는 네팔 어린이들에게 작은 도움을 주는 것이다. 뱌빈 다마가 작은 친절을 베풀 것처럼 주스라는 매개체를 통해 보다 적극적인 참여율을 이끌어내고, 판매 취지를 알려 사람들에게 네팔 지원피해에 대한 관심 또한 유도하게 해준다.

평소 우리는 현재보다 행복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몇몇 사람들은 이게 굉장히 어렵다고 말하지만 생각보다 간단하다. 어제보다 오늘을 좀 더 노력하며 사는 것이다. 예를 들면 25센트로 작은 도움을 베풀는 것처럼 말이다. 사소하다 생각되는 노력과 행동이 쌓이고 쌓여, 나중에 생각지 못한 행운이 되어 돌아올 수 있으니 말이다.

이름을 불러 주면 비로소 꽃이 된다

유민아
초등교육학과 1



거의 십 여 년 만에 다시 대학을 다니게 된 학생으로서 다시 대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꿈만 같은 일이다. 작년까지만 해도 무엇을 하며 먹고 살지 하고 고민하며 직장생활은 영 나와 맞지 않다는 등 어찌보면 지극히 현실적인 모습과 동떨어져 학업만 진전시키고 동기들과 어울려 돌아다니며 별 걱정 없이 전혀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내가 신기할 따름이다.

교사가 되기로 결심해 수능을 한창 준비하고 있을 때, 어떤 교사가 될지 나 나름대로 정리해 본적이 있었다. 한 학생은 학생모두에게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며 의미를 주고 또한 나 역시 의미가 되는 선생님이 되고 싶었다.

지난 학창시절을 돌이켜보면 가장 기억에 남고, 감사했던 선생님은 공부를 잘 가르쳐주거나 인기가 많으신 선생님이 아니라 나의 이름을 불러주며 내 생활의 세심한 것까지도 신경써주신 선생님이셨다.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는 이런 관계에 대해 잘 설명해주고 있는 듯하다. 그래서 볼 때마다 공감됐다.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은 큰 의미다.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은 사회에서 편의를 위해 형식적으로 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내적으로도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다. 거기서부터 관계가 시작된다. 대학생활을 오랜만에 시작하는 나 역시 새로운 관계를 위해 ‘의미’를 부여하고 이 학교와의 ‘관계’를 맺기 시작했다. 수업을 같이 듣는 동기들, 교수님들, 경비 아저씨

들 지금 이 학교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의미가 되고 싶다.

내가 머물렀던 시간과 공간이 나에게도, 그들에게도 소중한 ‘의미’로써 남았으면 좋겠다. 제주대에 막 입학했을 때,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동기들이 내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감동이 됐다. 나이는 나보다 한창 어린 친구들이지만 먼저 와서 인사해주고 ‘민아 언니’, ‘민아 누나’라고 불러줬을 때 다시 한 번 감동이 됐고 관계가 시작됐다.

틀림, 장미, 개나리, 벚꽃 등 엄청 많은 꽃이 이 세상에 존재한다. 하더라도 길가에 피는 꽃들도 있다. 그 꽃 자체가 크고 유명하고는 중요하지 않다. 나에게 와서 진정한 의미가 됐을 때 비로소 세상에 유일무이한 꽃으로 남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나는 제주대에 어떤 꽃이 될지, 또한 제주대는 나에게 어떤 꽃이 될지 가슴 속에 새기고 또한 몇 년 후 내게로와 유일무이한 꽃이 될 아이들을 생각하며 나 역시 그들에게 유일무이한 꽃이 되는 교사가 되기 위해 끊임없이 ‘이름’을 불러주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다.

대학교에서 한번 스치는 사람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인사를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 그 관계가 애매할 수록 인사를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서로에게 ‘의미’가 되고 우리의 인생이 수많은 꽃들로 더욱 풍성해 질 것이다. 인사를 하고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은 제주대에서의 모든 인연이 ‘의미’가 되어 질 것이고 무엇보다 바랄 수 없는 수많은 꽃이 될 것이다.

대학생이 된다는 것

강주희
중어중문학과 1



힘들었던 고3 수험생활을 지나 대학생이 됐다. 이전 난 스무 살 성인이 됐다. 지난 2개월 동안의 대학생활은 짧다면 짧다 할 수도 있고 길다면 길다 할 수도 있는 기간 같다.

나는 2개월 동안 여러 일을 하며 느낀 것이 많다. 아르바이트를 지금까지 계속 해오면서, 돈 버는 것이 재미있을 거라는 생각에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다면 나의 어릴 적 절 없던 모습에 때때로 비소를 날리기도 했다. 또 걸어서 혹은 자가용을 타고 통학했던 나에게 교통비는 큰 부담으로 다가왔다. 1200원을 내야 하는 현실에 좌절하기도 했고 내가 이제 청소년이 아니라는 것에 아쉬워하며 그 사실을 깨우치기도 했다.

가끔 누군가 나에게 “너는 몇 살이니?”라고 물을 때, 저는 “대학생입니다.”라고 말을 한다. 이런 내 모습이 아직도 어색하기만 하다. 아직 난 어린 것만 같은데 왜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 많은지, 옛날처럼 챙겨주는 선생님이고 없는지 아직도 어린 아이처럼 선생님을 때울리까만 한다. 난 아직도 이렇게 지나간 학생이라는 생각에 머물고만 있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등교길,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수많은 형형색색의 현수막이다. 그것들은 내 눈을 놀라게 만들었다. 형형색색의 현수막들이 담고 있는 수많은 슬로건은 내 자신을 창피하게 만들었고, 가슴 한 편을 육신거리게 했다. ‘왜 난 몰랐을까,’ ‘아니 모르는 척 하였던

게 아닐까,’ 나의 사고를 일깨우는 그 슬로건들을 보며 ‘아, 이런 모습이 대학생이구나, 대학은 고등학교와 이렇게도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했다. 내가 생각했던 대학생은 그랬다. 마치 영화에서처럼 사회의 부조리에 대한 저항을 하는 그런 모습. 나의 상상이 현수막의 한 줄의 메시지에서 표현되고 있었다.

처음으로 스스로 시간표를 짜고 수강신청 하던 그날, 수많은 사람들과 클릭을 하고 경쟁하며 성공하기도 했고 실패하기도 했다. 아직은 1학년이라는 생각에 시간표가 많이 비기는 했지만 그래도 힘든 것 보다는 낫다고 생각하고 있다. 아직은 공부보다는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싶다. 대학생이니까 할 수 있는 것을 누리고 싶다.

대학에 입학 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우리들은 많은 것을 느꼈다. 누군가는 대학생이 됐다는 것에 행복해하며 하고 싶은 것을 찾기도 하지만 또다른 어떤 누군가는 적성에 맞지 않는 전공에 힘들어 한다. 가끔 내가 상상해왔던 대학생활이 아니기에 실망하기도 하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현실에 좌절하기도 했다. 이런 모습이 너무 싫고 힘을 때면 친구들을 만나 늦게까지 말도 안 되는 말들로 수다를 떨며 스트레스를 날리고 다시 일상생활에 돌아온다. 그렇게 나는 대학생이 돼가고 있다. 그렇게 우리들은 아직도 익숙해질 것 같으면서도 낯날이 새로워지는 이 이런 대학생활에 계속 적응해 나갈 것이다.

제라진

아라대동제

뻔한 축제는 가라, 새로운 축제가 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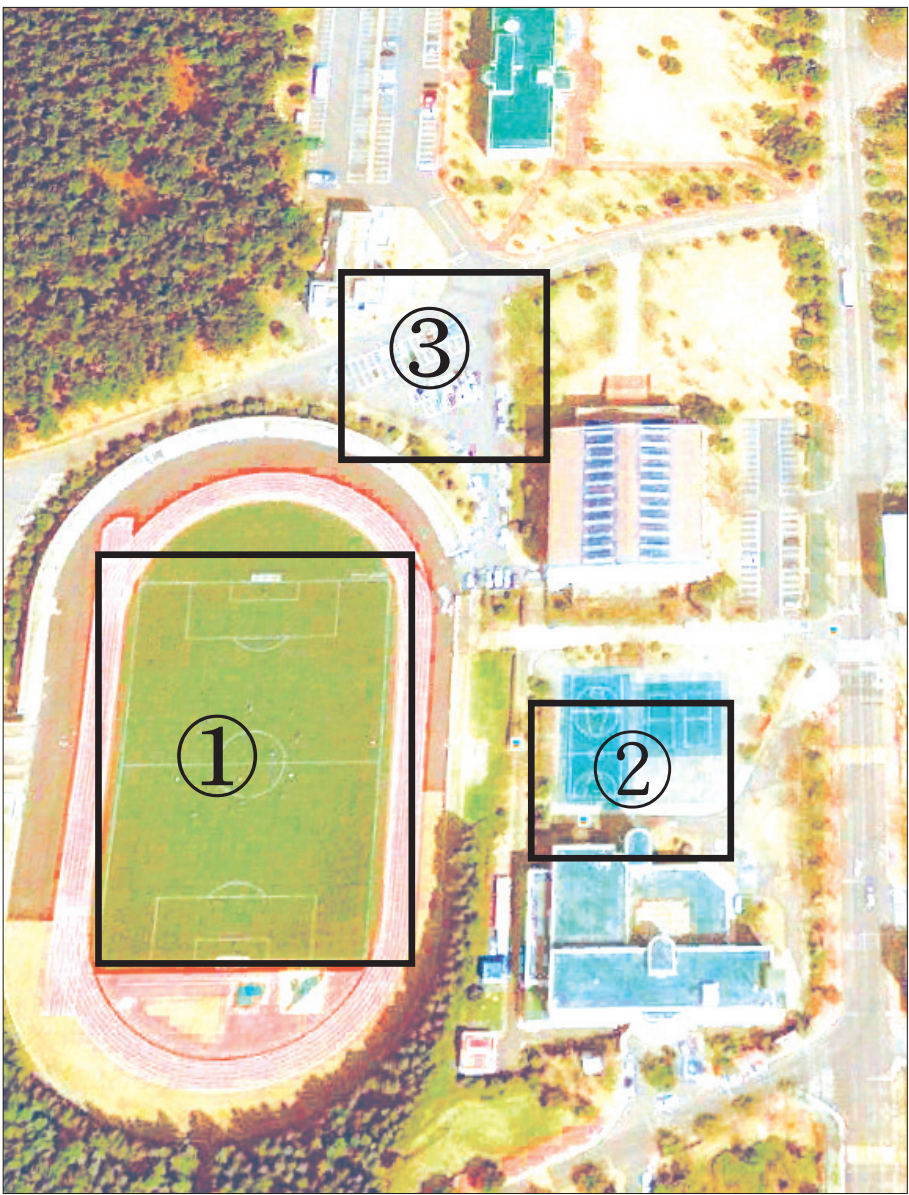
대동제 100배 즐기기!

봄날의 햇빛은 지고 중간고사가 끝난지도 한달이 지났다. 이제 학생들이 기다리고 갈 망하던 대학의 큰 꽃이 피게 된다. 그 꽃의 이름은 바로 아라대동제! 하지만 연예인만 보고 빠지는 축제는 이제 식상하다. 매년 반복되는 축제의 재미를 바꾸고자 SO아라 총학생회(회장 원일권 영어영문학과 4)가 발 벗고 나섰다. SO아라 총학생회는 제주대학의 축제인 아라대동제를 제주도에서 가장 멋진 행사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또한 모든 학생이 함께 만들어 가는 축제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축제인 제라진(제주대학교 아라인의 진정한 2015 아라대동제). 그 제라진의 불거리를 미리 전한다. 미리 알고보면 더욱 재밌는 제라진!

어떨까?
◇I want to be 정상
비정상 아니죠! Be정상 맞습니다! 학생들에게 언제나 정상이 되길 강요하는 사회. 그러나 그들이 생각하는 정상의 틀을 벗어나 학생들만의 정상의 기준을 마련하는 자리가 준비된다. 대운동장 메인무대에서 마련될 이 행사는 기존의 정상정인 사고 방식에서 벗어난 게임들이 준비된다. 게임을 스콜라 우프 다섯 개 누가 더 많이 돌리나! △안 오르는 토익 점수! 던져나 보자 토익책! 토익책 멀리 던지기 △베개 누워서 누가 멀리 차나! 이 3가지가 마련된다. 뼈때리게 게임을 즐기는 코너라고. 정상적인 틀에서 잠시 이탈해 게임을 즐기고 싶다면 축제 첫째 날인 26일 오후 3시 30분 대운동장 메인무대로 모여라!

◇'복면제왕' 제주대의 스타를 찾아라
나이, 신분, 직종을 숨긴 스타들이 목소리만으로 실력을 뽐내는 음악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인 MBC의 프로그램 '복면가왕'이 제주대 버전인 '복면제왕'으로 펼쳐진다. 사전오디션을 통과한 12팀은 자신들이 준비한 복면을 쓰고 끼와 재능을 일반학우들에게 보여주게 된다. 평가는 단과대학별로 10명씩 선정된 청중평가단 110명이 맡는다. 참가팀의 공연이 끝나고 청중평가단이 피켓을 드는 수 만큼 점수가 부여된다. 탈락자들은 MC의 인터뷰 시, 강제성 없이 자신의 소속과 성명을 밝히는 기회가 주어진다. 하지만 시상자들은 반드시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게 된다. 제주대 학생 외에도 제주도민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실력자들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청중평가단의 점수로 제주대 '복면제왕'을 선발할 계획이라고. 예비스타의 탄생일인 28일 오후 4시 30분 대운동장 메인무대로 찾아와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것은 어떨까?



를 더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기존의 경품 추첨을 다른 방식으로 표현했다. 스태프들이 대운동장, 족구장, 무대 관객석, 산책로 등 축제 장소 모든 곳에 다양한 방법으로 족지를 매달아 놓거나 붙여놓으면 일반 학우들이 그것을 찾아 부스로 상품을 교환하는 방식이다.

보물을 찾기 위해 서로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축제를 즐기다가 우연히 발견할 수 있도록 배치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소소한 재미를 느낄 수 있다. 상품으로는 영화티켓, 허니버터칩, 유자소주 등 이슈가 되고 있는 상품이나 축제를 즐기는데 도움이 되는 상품이 마련된다. 상품은 하루에 100개정도 준비한다고. 26일과 27일 준비된 프로그램과 부스를 즐기면서 보물까지 발견해보는 것은 어떨까?

◇오늘은 내가 강백호
다양한 장애물의 방해로 피해 솜을 SO아라. "오늘은 내가 강백호다" 학생들이 온몸으로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오늘은 내가 강백호'란 이름의 이 행사는 농구 기술인 자유투와 3점슛을 다양한 장애물로 방해 받으면서 솜을 성공시키는 게임이다. 게임 시작 전에 참가자는 복불복 돌림판 두 개를 돌려서 던질 공의 종류와 장애물을 결정한다. 두 가지가 결정되면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예를 들어 돌림판을 돌려서 셔플록과 트램플린이 걸리면 트램플린에서 뛰다가 호각소리나 시작 소리에 맞춰 남자는 3점슛라인, 여자는 자유투라인에서 공을 던진다. 공의 종류에는 농구공, 셔플록, 테니스공, 풍선, 솔방울, 신문지공이 준비된다. 장애물에는

지압판, 트램플린, 인라인스케이트, 뒤로 던지기가 있다. 성공할 경우에는 작은 상품이 지급되고 실패할 경우에는 음료수 한 잔이 지급된다. 축제기간동안 정적인 행동만 하지 말고 강백호가 되어 성취감을 획득해 보는 것은 어떨까?

◇SO아라를 이겨라
말로만 친근하다는 학생회는 이제 가라! 학생회와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5명이 팀을 이뤄 축구공 리플팅, 컴퓨터 게임, 폐활량 대결 등 중 돌림판을 이용해 랜덤으로 5가지 게임을 선택한다. 그 후 참가한 학생팀과 학생회 대표들이 대결을 한다. 5종목중 3종목 이상 승리 팀에게 상품이 지급된다. 27일 6시부터 대운동장 메인무대로 놀러와 프로그램을 즐겨보자.

So아라 총학생회가 준비한 아라대동제(제라진)는 제주대학교 역사상 가장 크고 아름다운 행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총학생회는 자신들의 공약에 따라 아라대동제를 문제가 많이 발생했던 잔디광장이 아닌 대운동장에서 진행했다.

또한 그동안 사용했던 대형사들을 사용하지 않고 직접 섭외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예인 섭외에 있어서도 직접 소속사와 조율해 섭외를 완료했다. 그 결과 아라대동제 예산 중 가장 적은 예산을 사용하게 됐다.

예산을 적게 줄였다고 해서 규모가 작아진 것은 아니다. So아라는 대학축제를 넘어 많은 도민이 참여할 수 있는 도내축제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연예인 라인업도 타대학과 비교해 뒤쳐지지 않는다고 학생들은 말했다.

1. 대운동장

◇당신들 잘하고 있습니까?

일반적인 전달은 이제 가라! 총학생회에 게 묻고 싶은 것을 마음껏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된다. 대운동장 메인무대에서 진행되는 이 행사는 사전에 준비된 의자에 앉아 있는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 2명에게 질문과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면서 이뤄진다. 이 자리에는 총학생회장단 외에도 4대 자치기구(총학생회, 총대위원회, 동아리 연합회) 대표 6명이 함께 등장한다. 질문이 마음에 들거나 좋다고 판단될 경우 이들은 좋아요 표시의 팻말을 들게 된다. 만약 4명 이상의 팻말을 들게 한 질문의 주인공에게는 상품권도 지급된다. 임기의 절반이 지난 총학생회. 축제 둘째 날인 27일 오후 2시부터 1시간 동안 진행되는 이 자리에 참석해 그들의 과거와 현재, 미래에 대해 질문하는 것은

◇보이는 라디오 '별세는 밤'

조명이 조금씩 어두워지고 연예인들의 공연이 마무리 된 어두운 밤. 열광의 도가니였던 대운동장이 잔잔하고 고요한 새로운 모습으로 변신한다. 26일과 27일 오후 10시 학생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소통하고 공감하는 보이는 라디오 '별 세는 밤'이 대운동장 메인무대에서 진행된다. 사연은 축제 기간 동안 마련 될 총학생회 부스에 가서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나 하루 동안의 에피소드 등 축제 동안 일어났었던 사연들을 적고 사연상자에 넣으면 된다. 하루 동안의 흥분했던 축제의 마음을 잠시 가라앉히고 차분히 사연을 들으며 축제의 밤을 마무리하는 것은 어떨까?

◇원희룡 도지사·강용석 변호사 초청 강연
So아라가 응원하고 원일권, 현지훈이 추천한다. 원희룡 도지사와 강용석 변호사가 26일 4시 30분부터 2시간 동안 대운동장 메인무대에서 청춘과 통하더라는 주제로 대화를 진행한다.사전에 학생회관에서 응모를 받은 질문지를 가지고 학생들과 소통하게

된다. 돈에 관한 고민, 이성관계에 대한 고민 등 온갖 고민을 들어주고 걱정해 준다.

원일권 총 학생회장장과 현지훈 부총학생회장장과 "좀처럼 보기 힘든 사람들의 강연을 통해 학생들이 얻는 것이 많았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2. 한라터 & 3. 글로벌 하우스 앞 주차장

◇Treasure Hunter

수동적인 경품추첨은 가라! 이번 아라대동제의 주제가 "아라인이 만들어 가는 축제"인 만큼 행사는 of the 아라(아라인의), by the 아라(아라인에 의한), for the 아라(아라인을 위한)의 의미로 일만 아라 모두가 쉽게 참여 가능한 "Treasure Hunter"가 마련된다. 축제를 즐기면서 소소한 재미



구분	5월26일(화)	부대행사			
		축제담당 입구	한라터	제주대학교 전역	총학생회 부스
시간	main				
10:00~11:00	무대준비	테마거리	오늘은 내가 강백호	Treasurer Hunter	우리 학교 예체능 풋살 게임 부스
11:00~12:00					
12:00~13:00					
13:00~14:00					
14:00~14:30	무대 프로그램 및 개막식 리허설				
14:30~15:30	당신을 잘하고 있습니까?				
15:30~16:30	I want to be 정상				
16:30~18:30	원희룡, 강용석 특강				
18:30~19:30	개막식				
19:30~20:00	동아리 공연 액센트				
20:00~20:40	어반자카파 공연				
20:40~21:20	포맨 공연				
21:20~23:00	별세는 밤				

2015 영화로 만나는 재일동포

재일동포 100년 애환의 삶과 역사를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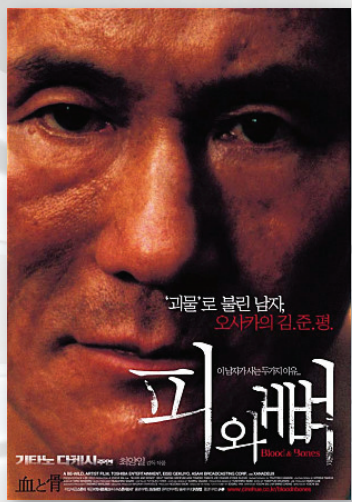
주최 : 제주대학교 재일제주인센터 장소 : 제주대학교 문화교류관 2층 시청각실



굿바이,평양

감독 양영희
상영시간 81분

30년간 평양과 오사카에 떨어져 살아야했던 가족



피와 뼈

감독 최양일
상영시간 142분

제주에서 일본으로 건너간 남자의 일대기



우리학교

감독 김명준
상영시간 131분

일본 조선학교 아이들의 희망다큐



박치기

감독 이츠즈 가즈유키
상영시간 119분

조선고학생과 일본 학생간의 좌충우돌 스토리

5월 19일(화) 오전 11시, 오후 4시

※무료상영, 다과제공

5월 20일(수) 오후 1시 30분

5월 21일(목) 오후 4시

5월 22일(금) 오전 9시



제주대학교 재일제주인센터
Center for ZAINICHI JEJU People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제주대학교 재일제주인센터 TEL : 064-754-3976